

대구소방본부, 쪽방촌에 소화기 보급

기사전송 2016/05/22, 21:28:16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와 함께 20일부터 이날 31일까지 쪽방촌 등 소외계층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험(강지기·소화기)을 무료 보급·선회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의 전체 화재 중 주거시설에서 화재 발생이 30.7%를 차지했다.

이에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해 소화기 100대와, 강지기 200대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보급·선회하는 봉사활동을 갖게 됐다. 또한 생활필수품과 라면 100박스를 함께 전달하며 화재예방 안전수칙 스티커도 배포할 계획이다.

김인식 연합회장은 “화재로부터 안전이 취약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소방시험 보급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취소